



순창소방서,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순창중학교 1학년 학생 43명을 대상으로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실시했다.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동안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로, 이번 순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관이 하는 일 소개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착용 ▲방수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완강기 체험 등 소방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해 직접 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신청은 순창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팀(☎650-9242)으로 문의하면 일정 조율을 통해 접수 및 안내 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광주지방보훈청장, 국립임실호국원 소통 간담회

임성현 광주지방보훈청장은 29일 국립임실호국원(원장 김덕석)을 찾아 직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소통은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각 과 및 주요 시설(충령당, 묘역 등) 순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안업무를 점검하는 한편 직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일 취임한 임성현 청장은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 보훈에우국장, 대전현충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7월 23일부터 소속 6개 기관을 찾아 현장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경찰, 녹색어머니연합회 위촉식·간담회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경 2층 서강실에서 녹색어머니회 회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년 동안 어린이 교통안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회원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신입 회원 6명에게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태호 경찰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활동해 주신 녹색어머니회원들의 활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녹색어머니회원들에 대해 노고와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29일 오후 청사에서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한 불시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요양병원 가상화재 상황 메시지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 및 다수사상자 대응훈련으로 ▲정확한 초기 상황접수 및 대응 방안 ▲재난 특성에 따른 신속한 의사 결정 ▲현장에 필요한 자원의 종류, 규모 파악 ▲현장에 적합한 소방력 배치 및 현장 통제 ▲재난 상황의 위험성과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다각적 해결방안 등 단계별로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료마켓으로 마을에 활력이 넘쳐요”

무주군 부남면, 장안마을 이장 박수훈씨 도움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생활용품 무료 공급

요즘 무주군 부남면사무소에는 지역 내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생활용품이 빼곡하게 진열돼 있다. 면사무소 정면에서 볼때 우측에 자리한 40㎡여 공간에는 주걱과 도마, 냄비, 그리고 반찬용기, 싱크대산반, 식기건조대, 욕실 미끄럼방지 매트 등 생활용품들이 가득하다. 부남면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가져갈 용품들이다. 4,000여 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이다. 면사무소에는 하루에도 이·미용권을 교부 받기위해 오는 어르신들을 비롯해 마스크를 받으러 오는 민원인, 그리고 각종 민원차 오는 어르신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들 어르신들은 요즘 부남면에서 운영하는 ‘무료마켓’ 때문에 또 하나의 활력을 찾고 있다. 민원도 해결 받고, 필요한 생활용품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자들은 각 가정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스스로 선택해 약5개 정도 생활용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 27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무료마켓은 오는 8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무료마켓 운영이 성사되기까지는 장안마을 박수훈



이장의 공이 컸다. 매사에 남을 돌기를 좋아하고 봉사 활동에도 전념하고 있는 박 이장은 올해 초 대전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친인척에 부남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용품을 기부할 것을 부탁하자 이를 흔쾌하게 수락하면서 무료마켓이 운영됐다. 박 이장은 “면사무소를 방문하시는 지역내 어르신들이 생활용품을 가져가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다시 무료마켓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공덕면, 인구유입정책 홍보대사로 나서다!

김제시 공덕면(면. 천만영)에서는 코로나19로 잠정 폐쇄했던 경로당에 대하여 무더위쉼터 1단계 운영을 위하여 공덕 경로당 등 30개소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지난 21일부터 관내 경로당과 모정을 순회 방문하고 있다. 김제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공덕면장으로 부임한 천만영 면장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기존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가족수당 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였다면 이제는 자녀들이 '김제시 내고장·내직장 주소 갖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김제시민이 되면 누리는 정책에 대하여 적극 홍보했다. 전입자에게 1인당 20만원의 전입장려금과 2명 이상 전입 세대에 30만원의 전입이사비 지급, 결혼하면 1,000만원의 결혼축하금, 2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출생아 출산장려금,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들에게 세대당 연 200만원 한도 최대 7년간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및 행복주



택 임대보증금한도 지원정책 등 자녀를 포함한 젊은 세대가 살기좋은 김제시 인구정책지원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천만영 공덕면장은 “공덕면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40%로서 출생아 대비 사망인구는 20배를 넘어서고 있어 인구감소는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천혜의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이 우수한 김제시에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교육지원 및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어 젊은이가 돌아오는 김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서부보훈지청, 유엔군 참전의 날 맞아 거리 홍보 캠페인

전북서부보훈지청은 지난 27일~29일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이하여 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유엔군 참전의 날 거리 홍보, 6·25전쟁 사진전, 규제혁신·청렴 캠페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캠페인을 통해 참전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청렴한 보훈 행정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엔군 참전의 날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는 전북서부보훈지청 SNS에 접속하여 제시된 문제의 정답을 댓글로 7월 31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한편 7. 27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감사하고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임실교육지원청, 신규교사 대상 역량강화 연수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무연)은 7월 매주 1회씩 총 5회에 걸쳐 관내 신규교사(2년미만)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신규교사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사 정체성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멘토 교사들의 다양한 경험과 교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석한 교원들은 멘토교사들과 학급경영, 수업, 평가,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도 사례를 청취하고, 현장에서의 적용 방법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 이무연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규교사들에게 멘토인 선배교사와 함께 소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하였다. 임실교육지원청은 이후에도 신규교사들의 교육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하여 멘토링제 활성화 및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운일암반일암 여름파출소 개장

진안경찰서(서장 김태형)는 진안군의 여름 대표적 관광지인 주천면 운일암반일암에서 여름파출소를 열고 오는 8월 16일까지 운영한다. 운일암반일암은 4계절 풍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계곡의 거대한 기암괴석과 시원하고 맑은 계곡을 찾아 인근 전주와 대전에서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피서지이다. 올해 운일암 반일암 계곡 위 구름다리(220m)를 12월 준공을 목표로 설치 중으로 완공되면 더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진안경찰서는 여름파출소 운영기간 중에는 피서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등 범죄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미야보호, 지리안내, 분실물 신고처리 등 치안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취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김태형 서장은 “피서지내에서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도동지구대, 탄력순찰 중 치매노인 구호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 도동지구대(대장 이동권)는 지난 28일 월라동 일원 탄력 순찰 중 도로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는 치매노인을 발견 구호해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이날 순찰에 나선 김소현 순경은 도로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하고 확인한바, 노인의 자전거가 일부 파손되어 있고 무더운 날씨에 현기증을 호소하고 쓰러져 있었으며, 치매증상을 보여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질문으로 인적사항을 파악, 주소지인 이백면에서 치매노인을 애타게 찾고 있던 가족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